

2010년에는 어떤 전시가 우리 감동시킬까.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가 내년 가을 제8회 대회(2010년 9월3일~11월7일)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특별전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홍성담 작 '천인-1955'

새해 볼만한 전시 벌써 기다려지네

5월엔 5·18 특별전 9월엔 광주비엔날레 '관객맞이'

서울시립 '오귀스트 로댕전' 등 블록버스터급 '풍성'

내년은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아시아지역 비엔날레가 일제히 열리는 '비엔날레의 해'이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는 현재 작가·작품 선정 중이며 광주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운암동 문예회관 내 옛 시립미술관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저평가된 젊은 작가들이 선보이는 최고의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혀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부산비엔날레(이하 가을),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등도 손꼽아 기다려진다.

지역 미술계도 기대되는 전시를 준비 중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내년 5월4일~6월13일 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연다.

과거 5·18 관련 전시회가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고 재현하는데 그쳤다면, 이번 전시는 미학적 측면을 강조해 시민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



안태영 작 '할머니가 준 왕시탕'

해 5·18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이 풍성하다. 먼저 내년 2월5일~5월30일 열리는 '작가-중심 네트워크'전은 서울의 미술관과 지역 미술관이 협력해 내놓는 이색 전시이다. 서울 아르코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

립미술관이 참여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들을 소개한다.

광주 작가로는 김상연, 안태영, 정광희, 진시영씨가 참여했고, 김도희, 김무준, 로와정, 신성환, 이예린, 박상호, 송성진, 이광기씨 등 21명의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 시립미술관은 내년 10월14일~12월5일 중국의 유명 화가인 장자오휘(蔣兆和)의 대표 작품 '유민도' 시리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자오휘의 유민도'전도 연다.

이 밖에도 내년에 시립미술관에서는 '국립대만미술관 교류(8월12일~10월3일)'전, '베트남 현대미술(12월16일~2월27일)'전 등이 열린다.

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민중청년작가(4월30일~7월4일)'전이 열리고, 상록전시관에서는 '홍성담전'(4월17일~6월6일)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블록버스터 전시인 '오귀스트 로댕전'(4월)과 덕수궁미술관의 '아시아현대미술전'(7~10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프랑스 베르사유궁 소장품전'(11월) 등의 전시가 기대된다.

또 김진성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9~11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9월8~12일)도 볼 만한 전시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향 새해 첫 연주는 드뷔시의 '바다'

상반기 레퍼토리·연주일정 확정

하루키의 소설 '1Q84'에 등장해 화제가 된 아나체크의 '신포니에타', 대규모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말러의 교향곡 '부활',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
광주시향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번) 2010년 상반기 연주 일정과 레퍼토리가 확정됐다.
2월 20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10 첫번째 연주회 레퍼토리는 드뷔시의 '바다'와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타'다. 이어 4월 3일 열리는 정

기연주회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과 아나체크의 '신포니에타'를 들려준다.
4월 16일 열리는 기획연주회는 '헝가리 음악의 밤'으로 꾸민다. 지난 11월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장소희(첼로), 최지혜(플루트), 김현진(바순)씨가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등을 만날 수 있다.
5월 17일과 18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이 찾아온다. 특히 18일에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공연이 열린다.

광주시향단원들 이외에 시민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상반기에는 두명의 객원지휘자가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3월 12일에는 지휘자 최희준씨를 초청,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과 '피아노협주곡 3번'(협연 서현일)을 연주하며 독일 출신 라울 그린어이스(6월 26일)는 모차르트 '교향곡 9번'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을 들려준다.
그밖에 광주시향 부지휘자 임흥규씨가 지휘봉을 잡는 수시연주회(6월 4일)에서는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하이든의 교향곡 제96번 '기적'을 연주한다.
찾아가는 연주회는 순천교도소(1월 28일), 광주교도소(2월 26일), 광주은혜학교(3월 19일), 삼무대 기계화학교(6월11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cafe.daum.net/gjsym.orch.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욕망에 찌든 모나리자 미소는?

이이남씨가 재해석한 명화전... 신세계갤러리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41)에게 올해는 최고의 한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달 한국미술협회 선정된 제3회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을 수상한 데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아내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모나리자' 등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북한 풍경의 작품 소재로 삼는 등 기법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이남씨가 29일~2010년 1월11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개인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이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동서양의 고전 명화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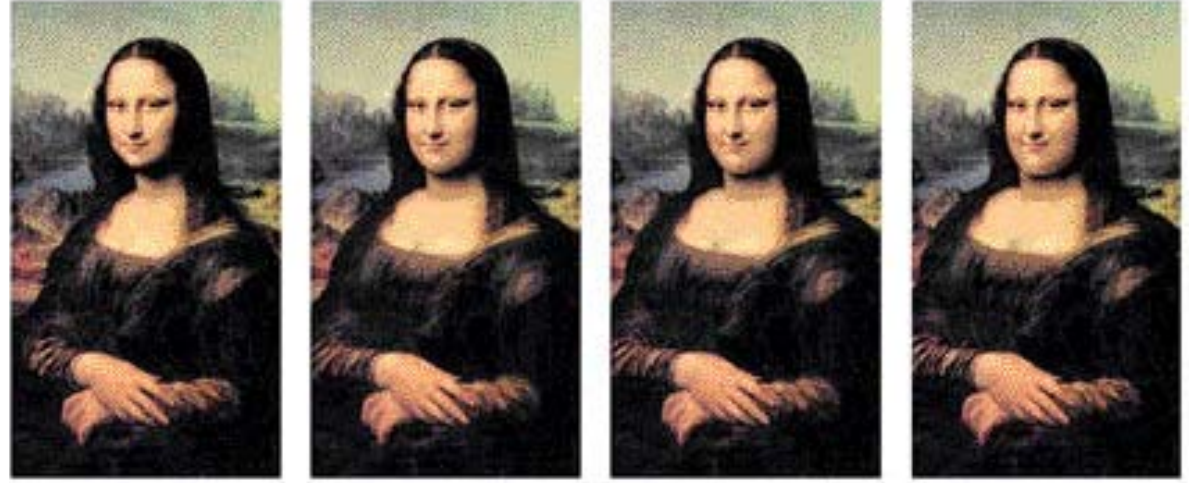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에 디지털 예술의 옷을 입힌 '인왕제색도-연하장'은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을 절경을 화면에 담았다.

산골짜기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안개를 환상적으로 표현했고, 호랑이가 산 위를 뛰어다니는 등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움직임과 생동감을 선사한다.

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동명 원작을 재해석한 '모나리자'에는 살 썬 모나리자(사진)가 등장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욕망에 찌들어 살이 부풀어오른 모습을 강조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칼튼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미스니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연식씨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퍼내

모네와 고흐가 즐겨보고, 유럽 인상주의에 영감을 줬던 일본 우키요에(浮世繪)의 아름다움이 책에 담겼다.

광주 출신 미술평론가 이연식(38)씨가 우키요에의 이해와 시대별 변화를 담은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를 펴냈다.

에도 시대 개막과 함께 본격화된 우키요에는 본래는 값비싼 유필화로 출발했지만 목판화 기법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됐다. 가부키의 배우나 유곽의 유녀들을 그린 미인화는 요즘

의 연예인 포스터나 브로마이드처럼 서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우키요에는 일본 도자기의 포장지로 유럽으로 건너가 당시의 예술가들을 매혹시켰다.

책은 우키요에의 탄생부터 발달 과정, 다양한 형식과 기법, 유럽에 미친 영향 등을 쉽게 풀어간다.

또 서양 문물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내리막길을 걷지만 오히려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과정도 소개한다.



풍성한 우키요에 이미지가 겹쳐져 화첩을 보는 재미도 있다.

그는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서양화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으며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한길아트)를 냈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씨의 장남이기도 하다. (아트북스·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연극인상에 임홍석·정경아

광주연극협회 선정

(사)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수여하는 2009년 광주연극인상 수상자로 임홍석(41·극단 DIC 대표)씨와 정경아(41)씨가 선정됐다.

임씨가 이끌고 있는 극단 DIC은 올

해 '장군슈퍼'로 광주연극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임씨는 '서안화차' 등 1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한 베테랑 연기자이기도 하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단원인 정씨는 지금까지 7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올해도 '민중의 적', '그 여



<임홍석씨> <정경아씨>
자 사람잡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저는 불만입니다... (중략) ...이것이 불만입니다.”

힘겨운 구조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과제를 몰타그림 공법은 국내에서 유일한 최단수 복원신법 신공법입니다

- 1. 기존 구조물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2. 구조물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3. 구조물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 구조물 진단 및 진단

대한건설공사 (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 www.daeheon.com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전력소비량 70% 절감 | 냉난방효율 96%

100% 저온가동

8년 보증

귀뚜라미

080-080-8802